

최병훈 교수, 국내 최초로 프랑스 사교경매장에 초청돼



국내 아트앤디자인 선구자로서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최병훈 홍익대 교수의 가구작품이 국내 디자인 주간으로 처음으로 프랑스 파리의 최고급 사교 경매장인 '노루오 물레뉴'에 초청되었다. 이번 초청은 지난 11월 파리의 갤러리 다문화에서 작품전을 개최하여 (르 몽드)에서 호화로운 찬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프랑스 최고의 미술관 경매회사인 'Piera Cornette de Saint Cyr'에서 경매사와 작품평가사가 최병훈 교수의 작품을 평가한 결과 세계 최고의 디자인가들의 작품과 함께 경매에 올릴 수 있는 수준의 작품으로 평가되고 초청되었다. 이같이 세계적인 안목으로 호화로운 최병훈 교수의 작품세계의 확장은 내추럴리즘과 아르데코주의이며 그것들의 서태성 추구를 통해 전통과 미켈라르니치 이치시 세계가 공존한다. 이러한 공존의식은 그의 작품소재로 통해서도 추구된다. 미디에어 및 나뭇잎한 거칠은 자연소재와 부드러운 목재는 그 물 상에서 알아지는 무거움과 가벼움, 거칠음과 매끄러움, 단단함과 부드러움 등이 심연한 감성을 공존시켜서 조형과 기능적 아름다움을 동시에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최병훈교수의현대적 디자인



최병훈은 자연자의 아름다움 통해 아름다움과 기능을 합친 '물 상 오브제'의 세계를 추구하며 물과 나무를 이용한 원초적인 조형세계를 현대화시켜 나간다. 거친 물 입자에서 아름다움의 나무를 받아 차곡차곡 목재의 아름다움과 자연 본성을 위해 잘 다듬어진 아름다움 대치적 소용. 그리고 잘 이해 하였던 일머리 지 공헌을 이루어 가득 담긴 것은 공예자의 초자연적 성취였을 뿐 아니라 내는 피차 등. 최병훈 교수의 작품에서 다양한 기능적인 모습이 보이는 것은, 그것으로 최의 세상에 뛰어난 뛰어난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음미한 미만의 향연을 일컫는다. (르 몽드) 물레뉴, 2002년 12월 23~24일

